

Daqing, LDPE 20만톤 플랜트 건설

에틸렌도 80만톤으로 20만톤 증설 ... 화학비료도 2005년까지 증설

중국의 Daqing Petrochemical이 120만톤 수소크래커 건설, 에틸렌(Ethylene) 60만톤 플랜트 보수, LDPE 20만톤 플랜트 건설 등 3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.

Daqing Petrochemical은 이미 2000년부터 58억9000만원을 투자해 몇몇 대규모 플랜트 증설을 마치고 한해 1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투자 대비 수익률도 15%에 달하고 있다.

Daqing Petrochemical은 또한 주력제품 생산규모 확대에 주력해 석유정제, 화학제품, 화학비료 플랜트를 증설하고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.

4억원을 투자해 화학비료 플랜트를 50% 증설하는 한편 해외에서 도입할 공정도 심사중이다. 2005년 10월 증설을 완료하면 암모니아(Ammonia) 15만톤, 우레아(Urea) 3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.

에틸렌 80만톤 플랜트 보수 프로젝트도 활발히 추진중이며 2004년 에틸렌 크래커 및 PE(Polyethylene) 플랜트의 기본설계, 장비 심사 및 구매를 완료할 계획이다.

Daqing Petrochemical은 2006년 10월 에틸렌 크래커 보수공사 완료 후 매출액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7/08>